

[종합]안동 과수원서 또다시 불길 치솟아...1시간25분만에 진화

등록 2018.02.17 00:38:42



【안동=뉴스시스】이통원 기자 = 지난 1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한 과수원에서 두 차례 불이 났다. 2018.02.17. (사진=안동소방서 제공)poto@newsis.com

【안동=뉴스시스】이통원 기자 = 경북 안동 한 과수원에서 또다시 불길이 치솟았다.

1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13분께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한 과수원에서 불이 나 1시간25분 만에 진화됐다.

앞서 이날 오후 2시58분에도 이 과수원에서 불이 나 모과나무 20그루를 태워 55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후 1시간 여 만에 불길이 잡혔었다.

이 불로 과수원 주인 A(78)씨가 얼굴과 양쪽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진화됐던 불길이 다시 치솟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7대와 소방관 18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과수원에서 잡풀을 태우던 중 불이 번졌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안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tong@newsis.com